

설치미술가 최재은 작가, 베네치아 건축전 본전시 참가

25 February, 2015 | 노형석 기자

설치미술가 최재은 작가 베네치아 건축전 본전시 참가

일본에서 활약해온 설치미술가 최재은(63·사진)씨가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를 다룬 정원 프로젝트를 들고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건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회에 참가한다.



그의 전속화랑인 국제갤러리는 최 작가가 올해 5월 개막하는 15회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회에 초청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최 작가는 1995년 이 비엔날레 미술전의 일본관 대표로 참가했었다. 이번 본전시 참가로 짝수와 홀수 해에 번갈아 열리는 이 비엔날레의 건축·미술전에 모두 참가한 유일한 한국 출신 미술가가 됐다.

최 작가가 선보일 작품은 '몽(夢)의 정원/드리밍 오브 어스(Dreaming of Earth)'란 제목의 공중정원 설치 프로젝트다. 비무장 지대에 슬하계 매설된 지뢰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사람과 생태계를 함께 지키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지상 3~6m 높이에 대나무와 천연 재료를 써서 총 15km 길이의 공중정원 모형 13곳을 만들고 이 모형들 중 두 곳에 '바람의 탑'을 세운다는 내용이다. 2014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꼽히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가 협업작가로 보행로와 타워를 디자인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국제갤러리 제공